

KIA 남모를 고민

9구단 체제 2연전...1000km 강행군

찾은이동 '고행길'

내달 삼성전 두번째 포항 경기 대구구장으로 변경 그나마 다행

'이동거리'는 지방팀 KIA의 남모를 고민거리다.

수도권 4개팀을 상대하기 위해 부지런히 뒷동네를 오가야 하고 NC의 1군 진입으로 마산도 새로운 방문지가 됐다.

그나마 수도권 일정은 교통 사정을 감안하면 낫다. 삼성 원정은 열악한 도로 탓에 멀고 먼 길이다. 특히 삼성의 제 2구장인 포항 야구장에서 경기는 걱정이 우선 앞서는 일적이다. 대구를 거친 뒤야 포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5시간에 가까운 대장정. 포항 원정의 경우 숙박시설도 마땅치 않아 선수단은 경주에 숙소를 잡고 경기장을 오간다.

올 시즌에는 9구단 체제에 따른 2연전 일정까지 소화해야 하면서 이동거리는 더 예민한 사안이 됐다.

지난 6월부터 프로야구에는 2연전 시스템이 도입됐다. 무더운 여름을 나느라 눈에 띄게 체력이 저하가 된 상태에서 두 경기를 하고 다시 집을 싸야 하는 만큼 이동거리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원정 두 경기가 끼여있는 2연전 첫 주에는 그나마 부산을 거쳐 열 동네 마산으로 이동하는 일정이라서 큰 부담은 없다.

하지만 9월 첫째 주에는 삼성-두산 원정

에 이어 한화와 흥경기가 잡혀있다. 여기에 삼성 경기가 포항야구장으로 배정됐던 만큼 KIA로서는 광주에서 포항, 포항에서 잠실, 잠실에서 광주로 이동해야 하는 일정이었다. 4경기를 치르기 위한 이동거리가 1000km에 이르는 강행군이다.

KIA가 앞선 5월(10~12일)에 이은 두 번째 포항경기에 대해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결국 7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9월 3~4일 포항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KIA-삼성의 경기를 대구구장으로 옮겨 치러지고 밝혔다. 포항구장 개보수를 변동 이유로 들었지만 해당팀과 경기를 기다렸던 지역 팬들에게는 뒤끝이 개운치 않다.

현재 프로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청주·포항 등 제 2의 구장에서도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KIA도 군산 월명구장에서 LG(8월 17·18일), SK(9월 10·11일)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제 2구장에서의 경기는 지역 팬들이 야구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호응도 높다.

하지만 경기장 시설 등은 본 구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상대팀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일정을 배치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변경과 재변경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주무기 체인지업은 명품"

감독들 설문... 내셔널리그 2위

미국 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는 '괴물' 류현진(26)이 내셔널리그 투수 가운데 두번째로 좋은 체인지업을 갖겠다는 평가를 받았다.

7일 미국 야구전문매체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메이저리그 감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류현진은 내셔널리그에서 콜 해밀스(필라델피아 필리스) 다음으로 체인지업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마치 직구인 듯 보이지만 느끼게 날아가는 체인지업은 류현진이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 던지는 그의 주 무기 중 하나다.

같은 설문 조사에서 신시내티 레즈의 톨타자 추신수는 내셔널리그에서 선구안이 좋은 선수 랭킹 3위에 자리했다. 추신수의 팀 동료인 주이 보토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마르코 스쿠타로가 이 부문 1, 2위를 가져갔다.

보토는 내셔널리그 최고의 타자 부문에서는 버스터 포지(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최고의 1루 수비 부문에서는 에덤 라모시(워싱턴 내셔널스)의 뒤를 이어 2위를 달렸다.



류현진의 팀 동료 중에서는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선정됐다.

커쇼는 또 내셔널리그 커브 부문에서는 웨인 라이트, 픽오프 부문에서는 홀리우 테헤란(애틀랜타)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뛰어난 투수로 평가받았다. 아시엘 푸이그는 세번째로 어깨가 강한 외야수로 조사됐다. 이 부문 1위는 카를로스 곤살레스(콜로라도 로키스)다.

한편 전문 베이스볼매거진인 보바디는 류현진이 신인왕에 오를 확률이 5%라고 내다봤다. 푸이그가 57%로 신인왕에 오를 확률이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추신수 '하트 앤드 허슬' 상 후보 선정

MLB 은퇴선수협 발표



미국 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는 추신수(31)가 '하트 앤드 허슬(Heart & Hustle)' 상 후보로 선정됐다. 실력과 성품을 두루 갖춘 선수가 받는 상이다.

미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MLBPAA)는 7일 메이저리그 30개 팀에서 1명씩 하트 앤드 허슬 상 후보를 발표했다.

추신수는 신시내티의 후보로 선정됐다. 추신수는 8일 오를랜드 에슬레틱스와 경기 전에 후보 증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2005년부터 이 상을 시상한 MLBPAA는 "야구의 가치와 정신, 전통을 가장 잘 실천하는 선수가 이 상을 받는다"며 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팀의 리드 오프로서 맹활약하는 추신수는 2011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 '추 파운데이션'을 세워 기금을 모으는 등 자선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던 2010년에도 이 상의 후보로 선정된 적이 있다.

'하트 앤드 허슬 상'의 최종 수상자는 11월에 팬, 현역선수, 은퇴선수 등의 투표로 정해진다. 지난해에는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이 이 상의 주인공으로 뽑혔다. /연합뉴스



무더위 날리는 비치발리볼

7일 울산진해수욕장에서 열린 2013 울산진해 세계여자비치발리볼선수권대회. 캐나다 선수(가운데)가 인도네시아 코트에 연타를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조대권 10언더파... 전국 학생 골프 선수권 우승

<광주동일전자정보>

광주 동일전자정보고 조대권(3년)이 아마골프의 강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송배 '디펜딩 챔피언' 조대권이 7일 화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4회 전남일일보배 전국 학생 골프선수권대회에서 2라운드 합계 10언더파 134타를 기록하며 남고부 정상에 올랐다. 2위 주혁(동일전자정보고 1)과는 3타차다.

조대권은 화순제일중 시절인 2010년 전국 중·고 골프대회에서 8연속 버디 행진을 펼치며 눈길을 끌었던 유망주. 허리부상으로

상으로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일송배에서 역전 우승을 이루며 기량이 물이 올랐다. 조대권은 이번 대회에서도 안정된 퍼트를 바탕으로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며 다시 한번 고등부 정상을 밟았다. 지난 7월 열렸던 전남 도지사배에서는 창원사과 김중학에 1타 뒤진 2라운드 합계 9언더파 135타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대권은 8일 개막하는 SR30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에서 샷 조율에 나선 뒤 회장

배·송원배·일송배·아마선수권대회 등 메이저 대회 정상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조대권은 "부상도 있었고 많은 고비를 넘어왔던 만큼 초심으로 경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다. 경험이 쌓이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다. 즐기자는 마음으로 경기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지금의 감각을 유지해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